

[ 기획 ]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18) 광주 북구 주부 인형극단 '미루나무'



지난 22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뮤지엄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마친 광주 북구 주부 인형극단 '미루나무' 단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형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은 우리의 힘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뮤지엄 스튜디오에서는 인형극 연습이 한창이었다. 오는 28일 무대에 올릴 인형극 '꼬마 드라큘라 피카빠카'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은 광주시 북구 주부 인형극단 '미루나무' 단원들.

스튜디오 한쪽에는 부리가 북 뛰어 나온 양무새, 금방이라도 울음 소리를 낼 것 같은 황소, 멧돼지가 소녀 등 다양한 모습의 인형들이 '출연'을 기다리며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2003년 창단된 '미루나무'는 인형극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면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단원은 김용석(45), 정흥련(57), 김연희(52), 김복자(50), 김진영(49), 김미숙(45), 박미영(43), 안분순(40), 이광자(38), 김효선(62)씨 등 30~60대 주부 10명.

인형극에 문외한이었던 단원들은 일주일에 두차례씩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 지금은 베테랑 연기자들이 됐다. 공연 때마다 무거운 막대 인형을 들고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향과 조명 등도 단원들이 직접 맡아 공연을 진행한다.

미루나무가 공연 때 주로 사용하는 인형은 세계의 막대로 조종하는 인형으로 크기가 보통 막대 인형보다 크다. 예전에 아이와 인형극을 관람할 때 인형이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게 아쉬웠던 엄마들의 의견이 반영돼 인형을 크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인형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 공연 내내 들고 있는 게 만만치 않다. 또 무대 아래 엉거주춤 앉아 공연을 지속하는 터라 체력소모도 많다.

하지만 모든 피곤함은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까르르 터지는 웃음 소리, 열렬한 박수소리를 들으면 눈 녹듯이 사라진다.

단원들은 공연에 사용되는 인형과 소품도 직접 만든다. 모두 살뜰하는 주부들인지라 말할하기가 이만저만 아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재료를 구입하기 보다는 집에서 못 입는 헌옷 등 재활용품으로 소품을 만들고,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보면 "이건 분명 쓰임새가 있겠다" 싶어 주워와 활용한다.

지난 7월 광주 동구노인복지센터에서 공연을 가진 단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

또 요양병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알코올 복용의 문제점을 일깨우는 캠페인 인형극 '곰돌이와 술사과'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단원들은 올해부터 자원봉사센터와 연결, 매달 한 차례씩 인형극 도구들을 챙겨주고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간다.

다른 팀 공연도 열심히 보면서 인형극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번 수상으로 단원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현재 주로 진행하고 있는 막대 인형극 이외에도 빛그림 인형극, 동극, 탈극 등 좀 더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해 보겠다는 꿈이다.

요즘 '미루나무'의 고민은 30~40대 젊은 주부 등 새로운 단원의 영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30~40대 주부들의 경우 아이들에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가 섰다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단원들 역시 '시간 내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규모가 큰 공연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 연습을 하는 터라 투자해야 할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나눔의 마음이 있기에 흔쾌히 참여하고 있다.

"인형극을 공연할 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까 참 행복해 지는데요. 내가 참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들구요(웃음)"(김진영) '미루나무'는 함께 연습하고 부대끼며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새로운 엄마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11-9431-9671.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인형·소품·조명 등 '아줌마 정신'으로 직접 제작

소외된 이웃에 다양한 공연 선물... '문화 전령사'로

인형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힘들기는 하지만 바늘에 손 찔러가며 단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인형과 소품을 만들고 있다.

'미루나무'의 공연 실적은 웬만한 직업 인형극단 못지않다. 지난해에는 모두 38회나 무대에 섰다. 올해는 벌써 33번째 공연을 마쳤다. 무대에 올리는 레퍼토리로 다양하다. 고전동화인 '귀뚜라미'를 비롯해 '아기돼지 삼형제', '할미꽃' 등 7편에 이른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광주북구향토문화센터에서 두차례씩 공연을 갖는 미루나무는 엠마우스복지관 등 소외된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문화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무래도 형편이 조금 어렵다 보니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해주면 참 좋아해요. 저희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구요"(이광자)

'미루나무'는 얼마 전 큰 행사를 맞았다. 8월초 막을 내린 춘천인형극축제에서 당당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 축제에 참가했던 단원들은 "상을 수상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상이라는 건 받고 나면 역시 좋은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연습을 대상을 목표로, 무대에서는 재미있고 신나게가 저희 모토였어요. 대부분 단체가 대사를 더빙하는데 저희는 다 라이브로 공연했죠. 이번에는

광주에총 '찾아가는 문화 활동'

총 28개 단체 참여 '맞춤식 공연' 제공

광주에총(회장 최규철)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다양한 공연을 접하고 싶은 각 시설이나 학교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 '맞춤식 공연'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광주국악협회 등 모두 28개 공연 단체가 소외 시설이나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9월부터는 김미숙 뿌리 한국무용단,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극단 진달래 피네, 극단 푸른 연극마을,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아트컴퍼니 원, 인형극단 각시탈, 장승일과 요들친구, 임지영&광주현대무용단 등 다양한 단체들이 연극, 현대무용, 인형극 등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공연 단체들이 직접 찾아가는 시설은 행복재활원, 귀일 정신요양원, 백선바오로의 집 등 각종 시설과 상무병원, 시립인광병원, 첨단종합병원, 광주초등학교, 삼도초등학교 등 다양하다.

2009년도 공연 희망 시설 지원 접수는 내년 1월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528-920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시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나(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 (TEL)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 (TEL)234-8216
상가건물 매도
· 금남로 대로지 231㎡(70평) 5층 20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TEL)383-5221
건물
·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HOME CON 흥켄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発・리서치 전문!

금당부동산
☎ (062)223-7400
공시가 감절가 70%이하
· 남동쪽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2천 매도5억4천